

蔡萬植과 방언

정승철*

I. 향토문화 좌담회: 표준어파와 사투리파

‘문학과 지역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대중 잡지 《삼천리》는 흥미로운 특집을 마련했다. 1940년에, 총 4회(12권 5호~8호)에 걸쳐 ‘향토문화’(주로 언어와 문학)에 관한 紙上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 출신 문인들의 원고를 해당 잡지에 연속해 실은 것이다(강은진 2016).

이 좌담회는 ‘어린 시절의 추억, 고향에 대한 감정, 지역 문학 작품의 특징, 지역 문인과의 교우 관계, 노후 생활과 고향’ 등에 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주고, 각각의 문인들이 이에 화답해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의 진술 속에는 ‘지방’과 ‘서울’ 또는 ‘지방말’(즉 ‘사투리’)과 ‘서울말’(즉 ‘표준어’)을 대하는 해당 문인들의 태도가 곳곳에 드러나 있어, 한국 근대 작가들(중점적으로는 ‘채만식’)이 가진 ‘문학 속의 방언에 관한 인식’의 일단을 살펴려는 본 논문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참조를 위해 이 특집에 참여한 문학인들의 명단 및 그들의 신상 명세를 조사하여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이면 <표 1>과 같다.¹⁾

우선, 순전히 이 특집의 진술에만 의지해 해당 작가들을 그들의 ‘방언 의식’에 따라 거칠게 분류하면²⁾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해당 잡지에는 “誌上出席者” 명단에다가 “現住”(=현 주소)만 명기되어 있다.
2) ‘박영희’의 경우, 이에 관한 어떠한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아 이 분류에서 제외했다.

〈표 1〉 향토문화에 관한 지상 좌담회(《삼천리》 12-5~8)

	지역	참여 문인
제1회 (5월)	평안도 황해도	金億(1896-?, 평북 광산), 白鐵(1908-1985, 평북 의주), 李光洙(1892-1950, 평북 경주), 李石薰(1908-?, 평북 경주), 朱耀翰(1900-1979, 평남 평양) / 盧子泳(1898-1940, 황해 장연), 咸大勳(1896-1949, 황해 송화)
제2회 (6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朴英熙(1901-?, 서울), 朴八陽(1905-1988, 경기 수원), 安懷南(1910-?, 서울), 兪鎮午(1906-1987, 서울), 尹石重(1911-2003, 서울), 鄭人澤(1909-1953, 서울) / 蔡萬植(1902-1950, 전북 군산) / 方仁根(1899-1975, 충남 예산)
제3회 (7월)	강원도 경상도	李泰燮(1904-?, 강원 철원), 李孝石(1907-1942, 강원 평창) / 金東里(1913-1995, 경북 경주), 嚴興燮(1906-?, 경남 진주), 張赫宙(1905-1998, 대구), 鄭寅燮(1905-1983, 경남 울주)
제4회 (8월)	함경도 “滿洲”	金玟燮(1905-1977, 함북 경성), 金起林(1908-?, 함북 학성), 李北鳴(1908-1988, 함남 함흥), 李庸岳(1914-1971, 함북 경성), 李燦(1910-1974, 함남 북청), 李軒求(1905-1982, 함북 명천), 崔貞熙(1906-1990, 함북 성진), 韓雪野(1900-1976, 함남 함흥), 玄駒駟(1909-1951, 함북 명천) / 朴啓周(1913-1966, 중국 연변 용정)

여기서는 각 부류에 속하는 문인들 명단과, 해당 태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각 지역 문인들의 대표적 진술을 함께 제시한다(기호 ‘/’은 ‘지역’ 구분 표시).

- 표준어파: 이광수, 주요한, 함대훈 / 안회남, 정인택, 채만식 / 엄홍섭, 이태준, 장혁주 / 김광섭, 김기림, 박계주, 이용악, 한설야
- ‘평양’은 문화적으로는 뒤떨어지는 곳 ... 그러기 때문에 평양 출신의 문화인이나 예술가는 평양을 무대로 하기보다 ‘경성’을 무대로 하고 활약해야 될 줄 압니다. (제1회, 주요한)
- 감정이 예리섬세하고 말이 ‘표준어’라 정확하고 문법 한군데 틀림없이 문장 전체가 수리정연하고 개성적이고 합니다. 조선문학이 형식상 완미를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토대가 되어질 것입니다.(제2회, 안회남)
- 내 고향인 ‘영남’은 문학작품에 집어넣을 만한 찬란한 ‘言語美’를 갖지 못합니다. 영남말이란 그저 무뚝뚝하고, 소박하고 애교 없는 게 특징은 될지언정 현대인의 복잡한 생활 내용을 묘사하는, 그 문학용어로서는 채용할 가치가 많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제3회, 엄홍섭)³⁾

3) 월북 작가 ‘엄홍섭’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경남 진주(아버지 고향)에서 보냈다. 그러한 성장 배경을 감안하면, 경상도 방언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해당 지역 문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 ‘關北’은 … 기후가 차고 모든 것이 부드럽지 못한 탓인지 그래서 입을 벌리기 싫고 그렇지 않으면 입술이 탁하고 혀바닥이 두터워 그런지音が不明 … 그래서 문학은커녕 사교나 戀愛에도 불리할 것 같습니다.(제4회, 김광섭) 말에 따라선 시골서 써여지는 말이 훨씬 맛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말의 효능이 그 말에 젖은 사람들에게만 한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이용악)
- ‘間島’의 독특한 언어 … 언어미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서울말에 비하면 해괴망칙할 뿐입니다.(제4회, 박계주)
- 사투리파: 김억, 노자영, 백철, 이석훈 / 박팔양, 방인근, 유진오, 윤석중 / 김동리, 이효석, 정인섭 / 이복명, 이찬, 이헌구, 최정희, 현경준
- 문예품의 용어로서 ‘사투리’ 같은 것을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쓰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색을 내이라고 하면 사투리 같은 것은 절대 필요한 하나외다.(제1회, 김억)
- ‘사투리’(지방어)와 그 지방 특유의 문물제도, 전통습관류는 그것을 살려서 문예 작품에 표현시키는 일이 진실하고 당연한 인생 관조의 태도일 것입니다.(제2회, 박팔양)
- ‘경상도’ 사투리란 것이 껍도 효과적인 때가 있어요.(제3회, 정인섭) 내 작품 중 영남 등지를 무대로 한 것은 〈산화〉, 〈바위〉, 〈황토기〉 등인데 그 작품 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는 물론 영남 말씨를 살려 쓴 셈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방(영남의) 사투리를 그대로 적어 놓았다간 의미전달이 불가능할 판이라 그러할 경우엔 꽤 고심을 한 셈입니다.(김동리)
- ‘관북’ 지방에서는 지방어를 사용하여 작품 내용을 빛낸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 그러나 이것을 분석하여 연구해 본다면, 아주 滋味 있고 구수하고 효과적인 미묘한 언어가 발견됩니다. … 역시 최후의 안식처는 고향일까 생각합니다.(제4회, 이복명) 사투리를 꼭 써야 할 장면에 이 악센트가 강하고 불명료한 말을 집어넣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은 한글의 부족성입니다. … 관북 사투리는 한글로 표현 못할 어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복하여 버리고 완전한 표현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문필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방 사투리와 한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 할 줄 압니다.(현경준)

이른바 ‘표준어파’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 문화 또는 방언이 문학적 형상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심지어 그러한 대답 가운데,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고향이나 고향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사투리파’는 대체로, 자신들의 고향말이 지역 정서를 나타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므로 문학어로서 사투리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주

장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문화와 방언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색을 드러내면서 작품의 ‘가독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와 같은 입장차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의 초점에 놓인 소설가 ‘채만식’은 ‘사투리파’보다 ‘표준어파’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관해서는 제2장 참조). 다음은 제2회 향토문화 좌담회(“『畿湖』 출신 文士의 ‘향토 문화’를 말하는 좌담회”)에 실린 채만식의 진술인데, 자신의 고향(전북) 및 고향 방언에 대한 그의 비호의적인 태도를 예서 엿볼 수 있다.

내 고향이라는 게 전라도하고도 매안 운치 없는 ‘臨陂’땅, 산도 보잘것없고 물도 보잘것없고 심히 평범한 곳입니다. … 호남 사투리가 타지방, 가령 영남이나 관북이나 관서 등의 사투리에 비해서 그대지 구수하거나 아름다운 게 되질 못합니다.

게다가 그는, 잡지에 연재한 소설들을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하면서 해당 ‘지문’(어떠한 경우에는 ‘대화’) 속의 사투리를 대부분 표준어로 수정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가령, 〈태평천하〉는 ‘천하태평춘’이란 제목으로 《조광》(1938년 1월호~9월호, 총 9회)에 연재되었는데 그 단행본(1948년)에서 연재본의 사투리가 표준말로 적잖이 고쳐진 것이다(이태영 1997). 그 이외의 작품에서도 그의 태도는 여일한바 이로써 보면 채만식은, 기존 세간의 평가처럼 문학어로 사용되는 사투리를 무한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 그런 작가는 아니었던 셈이다.

II. 표준어파의 염상섭과 채만식

표준어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확고하지 않던 1920·30년대에⁴⁾ 서울말은 중앙어로서 文語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시기의 사람들 대부분은, 말할 때

4)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에 이르러 비로소, 6천여 개의 표준말 단어가 정해졌다. 서울말 ‘표준어’를 국가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에서부터다.

는 자신들의 방언을 그대로 구사하면서도 글을 쓸 때는 서울말에 바탕을 둔 글쓰기 언어를 사용했다.⁵⁾ 이와 같은 중앙어에 기대어 국가 언어의 통일을 주장한 문인들은, 문학 창작의 영역에서 서울말(나중에는 표준어)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다. 당대의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표준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廉想涉(1897~1963)이다.

염상섭은 서울 출신의 소설가다. 그는 〈표본실의 청개구리〉(1921)를 통해 등단한 이래, 〈삼대〉(1931) 등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다. 그의 소설은 대개, 서울을 배경으로 하였고 작품 속 언어는 언제나 서울말(=경어)이었다.⁶⁾

그가 문학어로 사용한 서울말은 참으로 풍부하고 다채로웠는데 그의 소설에 쓰인 서울말 단어들은 나중에 상당수, 표준어로 수용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염상섭은 오늘날, 국어사전에 수록할 서울말 단어를 무수히 발굴한 서울말 채집가 나아가 서울말을 가장 잘 구사한 소설가로 평가 받는다. 또한 그는 이 당시에, 표준어 사용의 문제를 문학인 공통의 과제로 부각시킨 작가이기도 했다.

작품에 경어를 씁니까? 지방어를 씁니까? 어떤 작품에는 지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 반드시 표준어를 써야겠지요? ... 먼저 언어의 통일부터 힘쓰는 것이 좋을 듯해요.(〈제1회 조선문단 합평회〉, 《조선문단》 6, 1925년 3월)

위 글에서 보듯 염상섭은, 잡지사에서 주관한 文學 月評과 新年評 그리고 여러 문인들이 함께 작품을 검토하는 合評 등의 자리에 참석해 문학 작품의 언어를 반드시 표준어(또는 서울말)로 써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문학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한 태도를 지녔기에 그는, 소설 속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종종 구사한 金東仁(1900~1951)⁷⁾에게도 일침

5)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의 ‘언문일치’는 적어도, 서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언문일치의 기반이 된 ‘일상어’ 또한, 서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口語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6) 이 당시에는 서울말을 ‘경아리 말씨’라 했다. 이때의 ‘경아리’는 서울 사람을 낮추어 부르던 말이었다.

7) 평양 출신의 김동인은 〈배따라기〉(1921)에서 처음으로 평양말을 작품에 재현한 이

을 가한다.

최후로, 작자에게 사사로이 청할 것은 경어와 서도의 방언을 혼용치 마시라 함이다. (《개벽》 45, 1924년 3월)

김동인의 단편 소설 〈거츠른 터〉(1924)에 대한 ‘신춘 창작평’ 속에서 “경어”(=서울말)와 “서도의 방언”(=평안도말)을 섞어 쓰지 말라고 충고한 것이다. 이처럼 염상섭은 문학 창작의 영역에서 표준어 사용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 보인 당시의 문학인은 그 이외에도 여럿이 있었다. 강원도 철원 출신의 李泰俊(1904~?)도 그런 소설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이 자자하던 이태준은⁸⁾ 문장론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文章講話〉(1939)를 써 《문장》지에 연재했다. 여기에서 그는, 표준어를 “品”(=품위) 있는 말로 또 그러한 표준어가 사용된 글을 품위 있는 문장으로 규정하였다.

문장에서 방언을 쓸 것인가 표준어를 쓸 것인가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첫째, 널리 읽히자니 어느 도 사람에게나 쉬운 말인 표준어로 써야겠고 둘째, 같은 값이면 품 있는 문장을 써야겠으니 품 있는 말인 표준어로 써야겠고 셋째, 언문의 통일이란 큰 문화적 의의에서 표준어로 써야 할 의무가 문필인에게 있다 생각한다. (《문장》 2)

위 글에서 보듯 이태준은, 방언에 비해 표준어가 ‘可讀性, 세련미, 어문 통일’의 면에서 우월(?)하며 그러하기에 대중의 글쓰기를 선도하는 문인들에게 표준어 사용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⁹⁾ 비록 그가 ‘사실성’을 살

래, 〈갑자〉(1925) 등 많은 작품 속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문학어로 구현했다.

8) 1930년대에 ‘시는 정지용(1902-1950)이요, 산문은 이태준’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당대의 그는 빼어난 문장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9) 그가 월북 후에 집필한 《신문장강화》(1952)에서 “글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만 써야 한다. 사투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말했다는 증거로 보이기 위해 말을 그대로 그려 놓은 경우다. 이런 녹음적 묘사인 대화문 이외에는 전적으로 국어의 통일 정신 밑에

리기 위해 문학 작품 속의 ‘대화’에서만은 사투리의 사용을 허용했다 할지라도, 그가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운 위의 세 요소를 감안하면 그러한 ‘대화’ 속에서도 방언의 입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채만식(1902-1950)은, 비록 그가 표준어파로 규정되었을지라도 염상섭이나 이태준처럼 표준어를 통한 언어의 ‘통일’까지를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문학인은 아니었다. 다음은 〈續 餘白錄〉(《박문》 5, 1939년 2월) 속 그의 진술이다.

문장에 있어서 (위정 지방어로 써야 할 회화의 경우 말고) 말의 중앙 표준어화는 물론 당연 이상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표준어화에 있어서 실제의 곤란을 더러 당혹곤 한다. ‘별가리, 새별가리, 벼늘가리’ 이 말은 남방에서, 논에서 벼 벼를 논두덕에 가릴 때 그 선후와 형식에 따라 이름 하는 각각 다른 말이다.(제10권 349-50면)¹⁰⁾

표준어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강력한 “표준어화”(=언어 통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남부 방언의 ‘별가리, 새별가리, 벼늘가리’와 같은 말들을¹¹⁾ 표준어 ‘벧가리’ 하나로 통일하려는 건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 이외에도, 비록 표준 단어들이지만 그러한 곤란의 “실제” 예들이 그의 수필 〈한글 교정, 오식, 사투리〉(《민성》 33, 1949년 3월)에 여러 등장한다. 그중 전형적인 예 하나만 든다.

서 표준어로만 써야 한다.”(정홍섭 2010: 250, 재인용)라 한 것도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10) 여기서의 면수는 《채만식 전집》(1987)의 것이다(인용하는 작품이나 논설의 연도는 ‘최초 발표 연도’). 이 전집의 원문을 인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등을 약간 수정하기도 했다(이하 동일).

11) 이 단어들의 의미차에 대해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다만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 실린, ‘벧가리’에 대응하는 다음 방언형들이 참조된다. 전북 익산의 ‘나라가리(눈에 있는 것)/벧가리(집에 있는 것)’, 장수의 ‘나라가리/베늘까리(크게 쌓은 것)’, 경남 창녕의 ‘발가리/벧가리(이삭 부분이 안쪽으로 향한 것)’, 강원도 영월의 ‘벧가리/줄가리(줄로 길게 쌓은 것)’.

다른 두 개의 사물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글자로서 표현되는 것이 원칙이요, 이 상적이요, 따라서 상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같이’와 ‘가치’만 하더라도 동은 ‘같이’로, 공은 ‘가치’로 구별한 제정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한 것을 무슨 필요가 있어 동도 ‘같이’로, 공도 ‘같이’원문에는 ‘가치’로 통일을 하였는지?(제10권 473면)

‘이같이, 한결같이’ 할 때의 ‘같이’(同)와 ‘같이 가자’ 할 때의 ‘같이’(共)는 뜻이 다르므로 하나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에게, 뜻이나 뉘앙스가 다른 사투리를 서울말로, 심지어 ‘표현상의 공백’이 있는 표준어로 일괄 수정·통일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불만스러운 작업이었을 터이다.

나는 방언을 많이 쓴다. 방언인 줄 알고 쓰는 것도 있고 방언인 줄 모르고 쓰는 것도 있고 표준어로는 몰라서 할 수 없이 방언을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아무튼 많이 쓰기는 쓴다.(제10권 476면)

위의 ‘고백’에서 보듯, 그의 눈에 비친 당시의 표준어는 지위가 불안정하고(“방언인 줄 알고” 쓴 것), 보급이 원활치 못했으며(“방언인 줄 모르고” 쓴 것), 표현상의 공백과 결합이 있는 것(“할 수 없이 방언을 그대로” 쓴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채만식은 이 글(〈한글 교정, 오식, 사투리〉)에서, 표준어의 완전한 정립을 위해 좋은 국어사전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결론하게 된다.

물론 그가 상정한 국어사전은 단순한 ‘규범 사전’이 아니라, 모든 어휘가 다 수록되고 표제어들 사이의 작은 의미차도 섬세히 규정한 ‘기술 사전’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로써 보면 채만식은, 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최대한 확대된 표준어를 상정하는 이른바 ‘느슨한’(=덜 엄격한) 표준어주의자였던 셈이다.

시방 간행 중에 있는 조선어학회 편찬의 사전이 어떤 모양을 하여 가지고 나는지는 모르나 ‘차하다, 낫수’ 같은 말도 수록치 못한 것일 터이거나 차라리 우리는 4천 년의 문화민족이란 말을 사전 한 권쯤을 완성하는 날까지 겸손스럽게 보류하기로 하자.(제10권 477면)

재반 여건이 미비한 당시로서 그는, 이같이 불완전한 표준어에 의지해 문학어의 전적인 통일까지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하기에 채만식은 “사전다운 사전”의 완성을 전제로, 소설의 ‘지문’에서만 (가급적) 사투리를 쓰지 말고 표준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저러나 회화에는 그 지방이요, 그 인물일 경우, 사투리를 쓰는 게 좋지만 어느 지방의 방언이고 地文에까지 방언을 쓰는 건 반대합니다.(제2회 향토문화 좌담회)

이처럼 그가 지문에서의 표준어 사용에 적극 동조한 것은, ‘가독성’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¹²⁾ 그러면서도 주로 대화에서만은 사투리를 그대로 드러내었는데 이로 인해 채만식은 오늘날, 전라도 방언을 풍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구사한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 받게 된다.¹³⁾

III. 채만식 소설 속의 ‘팔도 사투리’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출신의 소설가 채만식(1902~1950)은¹⁴⁾ 임피보통학

12) ‘가독성’에 대한 언급은, 〈낙일〉(1930) 서두의 ‘작자의 변’에 명료하다; 이 희곡은 ‘장소’가 전라도인 만큼 대사를 전라도 사투리로 써야만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희곡의 본래의 뜻이 지방색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읽기애나 듣기에 거북하고 난해한 사투리를 피하여 경어(京語)를 그대로 써둔다.(제9권 218면) 독특하게도, 소설과 달리 채만식의 희곡(시나리오 포함)에서는 지역 사투리가 그다지 돌출되어 있지 않다. 단적으로, 소설 〈정거장근처〉(1937)와 이를 시나리오로 개작한 〈무장삼동〉(1941)을 직접 비교해 보면 후자에서 사투리가 훨씬 적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13) 1930년대 당시에도 이와 동등한 평가를 받았던 모양이다. 전남 곡성 출신의 중문학자 정내동(丁來東 1903~1985)이 쓴 〈지방색이 농후한 채만식 단편집〉(동아일보 1939.11.29.)이란 기사에 그의 작품집이 “전부가 지방색이 농후한 작품들이다. … 지방 중에서도 필자가 어려서나 현금(現金)에도 고향에 가면 조석(朝夕)으로 듣는 사투리를 쓰는 지방임에 놀랐으며 그러한 사투리를 쓰는 목가적 정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교를 졸업하고(1914년) 상경하여 ‘종로구 계동’에 있는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고)를 다녔다(1918-1922년). 졸업 직후 독일, ‘도쿄’의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와세다고등학교에서 수학하다가 관동 대지진(1923년 9월 1일)이 발생하자 공부를 그만두고 1923년에 귀국하였다.¹⁵⁾

1924년에는 ‘강화도’의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25년에는 동아일보사의 정치부 기자가 되었다. 그 이후 1935년까지, 개벽사와 조선일보사 등에 근무하며 주로 ‘서울’ 생활을 하였다. 1936년 1월에 조선일보사를 나온 뒤, 넷째 형이 살고 있던 경기도 ‘개성’으로 이주하고 ‘전업작가’(방민호 2001: 38)가 되었다. 1940년에 ‘안양’으로 이사한 후 1950년에 ‘肺患’으로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낙향과 상경을 반복하면서 군산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¹⁶⁾

그의 삶을 국내 거주지 중심으로 일별할 때, 채만식은 ‘군산’과 ‘서울’(또는 그 인근)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보냈으며 경기도 ‘강화’(근 1년)나 ‘개성’(약 4년)에서도 일정 기간 머물렀다. 그러한 까닭에 그의 소설 속에, ‘군산’이나 ‘서울’뿐 아니라(1)과 (2)의 경우 ‘강화’나 ‘개성’ 출신의 인물이(3)과 (4)의 경우 종종 등장해 해당 지역 사투리를 써 대화하는 장면이 출현하게 된다(해당 지역의 특징적 사투리에 밑줄).¹⁷⁾

- (1) <태평천하>(1938)의 ‘춘심(기생)→윤직원(주인공)’ 대화: “열년 살이라우.” 동기 아이는 아직도 고향 사투리가 가시지 않았습시다. 하기가 윤직원 영감 같은 사

14) 여기서는 <채만식 전집>(1987)의 <채만식 연보>(제10권 601-3면)와 방민호(2001: 29-48)에 의지해 그의 생애를 간략히 서술한다.

15) <채만식 연보>에 따르면 그 후, 채만식은 “장기결석 및 학비 미납”을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제적되었다(1924.2.1.).

16) <평강채씨대동보>(2001)에 따르면, 채만식의 본명은 ‘東萬’(一名 ‘萬植’)이고 平康 蔡씨 제22세 손이다(본향은 강원도 ‘평강’). 그의 집안은, 제7세 ‘蔡智生’ 이후 약 500년간 대대로 군산에 세거하였으므로 그는 분명히 전형적인 군산 지역어 화자다. 게다가 채만식은, 그 처가(익산시 함라면)나 외가(익산시 여산면)마저도 군산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17)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원문의 대화를 약간 줄이기도 하였다(이하 동일).

- 람은 십 년이 되었어도 종시 그러닝개루를 못 놓지만요.(제3권 107면)
- (2)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의 ‘노라(주인공)→옥순(고향 동생)’ 대화: “옥순이” 하고 노라가 다정하게 불렀다. “응?... 아이구 참, 형님인데.” “아니 서울말로 부르지?” “언니... 예?”(제1권 69면)
- (3) 〈금의 정열〉(1941)의 ‘강화아씨(방물장수)→개성의 姑婦(금비녀 판매자)’ 대화: “이 댁에 어머니서꺼 다 안녕하쨌까아?” 우산을 접어들고 안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우선 향투의 인사를 건넨다.(제3권 241면)
- (4) 〈금의 정열〉(1941)의 ‘개성의 婦→姑(금비녀 판매자)’ 대화: “닷 돈쫘은 닷 돈 쫘이래두, 그때 각 상점에서 말이, 닷 돈쫘이 훨씬 넘는다구, 하잖았시니까?” 이 말은 그러나 강화아씨더러 들으란 소리.(제3권 247면)

흥미로운 것은, 채만식의 소설 속 사투리 대화가 이들 지역(전라도, 서울, 강화, 개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5) ㄱ. 〈탁류〉(1937-8)의 ‘행화(기생)→초봉이(정주사의 큰 딸, 주인공)’ 대화: “언 짜문 저 입하구 턱하구가 저리두 이쁘노! 다른데도 이쁘지만... 예? 올게 (올에) 몇 살이지요?” “스물한 살.”(제2권 31면)
- ㄴ. 〈냉동어〉(1940)의 ‘박(출판사 직원)→김(출판사 직원)’ 대화: “신문들도 항 글통일안으로 지지는 하문서도 미처 활자로 갖추지 몬해서 그릉 기 아니 오?”(제5권 386면)
- ㄷ. 〈금의 정열〉(1941)의 ‘영쇠 고가¹⁸⁾(금광의 막장꾼)’ 독백: “아아! 내 십 년 막장꾼 해묵었어도 참이다... 고만에 사람 받 안하겠나!” 하고 그 꺾죽꺾죽 한 영남사투리로 혼자 중얼거리던 것이다.(제3권 478면)
- (6) ㄱ. 〈아름다운 새벽〉(1942)의 ‘귀덕어멈(본가의 행방어멈)→준(소설가, 주인공)’ 대화: 준의 앞에다 밥상을 놓으면서 친생 그 짓우는 소리로 “무셋날¹⁹⁾이라 고기두 없구... 진지가 이렇게 으설퍼 어떡해세요!... 닭은 잘 잡섯지두 아 녀시구...”(제4권 130면)
- ㄴ. 〈여자의 일생〉(1943)의 ‘원선생(준호네 학교 교사)→준호(주인공) 반 학생’ 대화: “어대 그것두 몰랐던갑?” “저두 효돌 해야 허는 줄은 알지만 선생님 등쌀에 불흔 해야 하니 말씀이쨌요?” “무어? 워째서?”(제4권 195면)
- (7) ㄱ.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의 ‘정원이 엄마(하숙집 주인)→노라(주인공)’의 대화: “예 그렇수... 내가 정원이 에미외다. 성씨가 뉘시유?” “임갑니다.” “예, 넙씨요... 혼자 되었다디요?”(제1권 142면)

18) ‘영쇠’에는 ‘嶺南産’이란 주석이 달려 있으니 결국 ‘영쇠 고가’는 ‘고씨 성을 가진 경상도 사람’이다.

19) ‘무셋날’은 ‘장이 서지 않는 날’(=무섯날)을 가리킨다.

- ㄴ. 〈냉동어〉(1940)의 ‘대영의 장모→대영(출판사 기자, 주인공)’ 대화: “날래 둘 오라만, 애!” “왜요?” “외안 머어가! 날래 와야디!”(제5권 393면)
- (8) ㄱ. 〈금의 정열〉(1941)의 ‘박윤식(방물장수 접주)→해주아씨(방물장수)’의 대화: “아, 더우에 얼마나 어려우실야?” “괜찮시다요!”(제3권 265면)
- ㄴ. 〈낙조〉(1948)의 ‘황주 이주머니(어머니 친척)→아버지’의 대화: “안젠 그런 생각 지런 생각 하실랴 마시구 한국민주당이나 독립촉성회에 드시우, 그게 젤 슌넨다.”(제8권 381면)

(5)의 ‘행화, 박, 영쇠 고가’는 경상도, (6)의 ‘귀덕어멈, 원선생’은 충청도, (7)의 ‘정원이 엄마, 대영의 장모’는 평안도, (8)의 ‘박윤식, 해주아씨, 황주 이주머니’는 황해도 인물로 각각 자신의 방언을 써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 (9) 〈회〉(1940)의 ‘김군(나이 어린 중학 동창)→나(작가, 주인공)’의 대화: “우리 헝 경도로 오우다²⁰⁾ 많소잉, 소만씩 한 기…” “그 소만씩한 색시들이 날 무얼 보구 중대 겠소!” “서울 양반 앵이요!”(제7권 570면)
- (10) 〈배비장〉(1943)의 ‘해너→배비장(주인공)’의 대화: “아니, 인 녁은 그래, 짜 래 기 밥 먹고 병 풍 뒤 에서 낮 잠 자 왔 습 나?²¹⁾ 어 째 초 면 에 반 말 지 꺼 린 고? 반 말 지 꺼 리 가 ...”(제6권 156면)

좁 드물긴 하지만 (9)~(10)에서 보듯 함경도와 제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인물이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해 있기도 하다. 결국, 전국 9개 도 중에 강원도만 제외된 셈이다.

이처럼 채만식은, 지역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작중 인물의 출신 지역을 고려해 각지 사투리로 대화를 구성했다(물론, 그들이 언제나 해당 사투리를 쓰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앞서 서술했듯 그의 작중 사투리가 전북 방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채만식의 소설 속 방언을 특정 지역에

20) 여기서의 ‘-우다’는 존대의 명령형 어미로 쓰였는데 함경도에서는 이 경우에, ‘오 읍쇼’에서처럼 ‘-읍쇼’(또는 ‘-쇼’)를 쓴다(최명옥 외 2002: 161-3). 이 ‘-우다’(=하나다)는 평안도에서 존대의 서술형으로 쓰이는 어미다(최명옥 1985).

21) ‘왔습나’의 ‘-습나’(발음상으로는 ‘음나’)는 제주방언에서 쓰이지 않는 형태다. 이는 ‘밥 먹었나?’(=밥 먹니?)에 나타나는 하대의 의문형 어미 ‘-없내업나’(정승철 1997: 96-7)에서 연상된 형태로 보인다.

대한 애향심과 결부하는 태도는 그다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IV. 문학적 ‘사실성’과 방언 사용

채만식의 소설에는 유독, 방언차에 대한 서술이 자주 등장한다.²²⁾ 다음은 탐정소설 〈염마〉(1934)의 주인공 ‘백영호’(탐정)의 진술이다.

- (11) ㄱ. 영호→오복이(조수): “말소리는?... 어때? 무슨 사투리가 없어?” “글쎄요... 약간 남도사투리가 섞였던 것도 같은데... 그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남도라도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영남 사투리가 다르잖나?”(제1권 315면)
- ㄴ. 김서방(조력자)→영호: “영감님서건 아가씨서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되구 그랬지요니까.” “고향이 강활세그려?” 영호의 이 말에 김서방은 놀란 듯이 고개를 든다. 강화 사람이 ‘서깐’이라든가 ‘오니까’라든가 하는 사투리를 잘 쓰는 것을 영호가 알므로 넘겨짚어 본 것이다.(420-1면)

또한 작중 인물의 대화 속에, 지역 사투리의 특징이 치밀하게 대조·노출되어 있기도 하다.²³⁾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의 주인공 ‘임노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자.

- 22) 흥미롭게도 채만식은 자신의 작품 속에 간간이, 각 지역 방언에 대한 인상을 적어 놓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에서 “영남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는 처지가 좀 다르다. 경상도 사투리는 “구수한 것”(〈탁류〉, 제2권 30면)이나 “그 구수한 영남 말투”(〈아름다운 새벽〉, 제4권 29면) 또는 “영남 사투리로 구수하게 이야기”(〈세 길로〉, 제6권 415면) 등처럼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전라도 사투리는 대체로 “좀 경망스럽습니다.”(〈태평천하〉, 제3권 11면)처럼 부정적이거나 “알짜 우리에게 사투리와 악센트로”(〈집〉, 제8권 88면) 또는 “알짜 전라도 사투리”(〈강선달〉, 제8권 196면)처럼 사실적으로만 그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금의 정열〉에서 전남 광주 출신의 주인공 ‘상문’(금광주)의 말투에 대해서만은 “고향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타고난 부드러운 음성으로 구수하게 이야기”(제10권 207면)한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 23) 〈태평천하〉(1938)의 “인력거 썩이(삿이) 뿔푼이당가?”(제3권 11면) 등과 같이, 그의 소설 속에서 간간히 괄호를 사용해 전라도 사투리와 표준어를 대비시켜 놓는 것도 동일하게 이해된다.

- (12) ㄱ. 노라→남의사(옛 정인): “네, 고맙습니다. 남선생님도 그새 안녕히 계셔요.”(제1권 30면) / 노라→오병택(고향 친구): “아이구 이슴찰애라.” “전라도에 오시더니 대번 사투리가 나옵니다그려.”(34면)
 ㄴ. 옥순(고향 동생)←노라: “참, 형님인데.” “아니 서울말로 부르지?” “언니.”(69면)
 ㄷ. 정원이 엄마(집주인)←노라: “성씨가 뉘시유?” “입갑니다.” “예, 뉘씨요.”(142면)

‘이슴찰다’(전라도)²⁴⁾와 ‘고맙다’, ‘형님’(전라도)과 ‘언니’ 그리고 ‘뉘씨’(평안도)와 ‘임가’가 (거의) 같은 맥락 속에서 대비되어 있는 것이다.²⁵⁾ 게다가 그는 작품을 쓸 때 지역어는 물론, 계층어의 차이도 고려했다.

- (13) <배비장>(1943)의 ‘차돌(방자)←배비장’의 대화: “물길이니 대중이 없음지요. 날새가 청명하고 순풍이 부오면야 눈 깜작할 새 당도합지요만...”(제6권 99면) “소인두 허느니 그 말씀이와요! ... 네? 인젠 약을 잡사요? 그럼 지금 가서 의원을 데리구 오갑쇼?”(124면)

제주 목사가 부임할 때 해남 관아에서 뽑아 제주로 데리고 들어간 방자가 ‘차돌’이다. 그러므로 ‘차돌’은 틀림없이 전남 방언 화자였을 텐데도 ‘배비장’ 앞에서는 해남말이 아니라 아전들이 쓰는 말씨를 썼다. 계층어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한 결과라 할 만하다.²⁶⁾

한편 채만식은 문법 형태를 구분하는 방면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 24) ‘이슴찰다’는 <전남방언사전>(이기갑 외, 1998)에 ‘미안할 정도로 고맙다’로 풀이되어 있으니 ‘고맙다’와는 약간 구별되는 뜻을 지닌 단어다. 물론 채만식이 이러한 차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
 25) <태평천하>(1938)의 지문 “‘돈’이란 말인데, 어리광으로 입을 가래비째고 말을 하니 ‘뉘’이 뉘니다.”(제3권 51면)와 같은 설명은 음운론적으로 재미있다. 임무출(1997: 16)에서는 이때의 ‘가래비째다’를 ‘가로로 벌리다’로 풀이했다.
 26) 채만식의 작품 속에 경어법상의 ‘待遇’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가령, <보리방아>(1936)에는 “그는 면장과는 나이도 ‘뱃’을 할 나이요, 또 다 같이 세교가 있는 소위 반명(班名)하는 집안의 끈터리라 맞히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태호 편이 ‘주어겨야’라고 높여주는 말을 섞어 쓰는 것”(제7권 103면)이라 하여 ‘나이’와 ‘위세’ 그리고 ‘직위’에 따라 경어상의 말투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른바 ‘사회 언어학’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다.

- (14) 주책망나니가! 라고 웃었으나 쫓 보통이지야고, 예사로 여겼고… 그날부터 곧 화선은 용순과 친해졌다.(제4권 88면) … 그는 남주사가 좋다고 권을 하고 어머니가 가깝하다고 하는 데 좇아 깊이 생각함도 없이 흥주사와 결혼을 했던 것(97면)

위 지문은 <아름다운 새벽>(1942)에서, 딸뻔 되는 ‘용순’과 ‘흥주사’의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한 부분이다. 여기서 문장 부호 ‘!’의 사용 여부에 주목하면,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가 그리고 간접 인용에서는 ‘-야고’ 및 ‘-고’가 구별·사용되었음을 쉬 알 수 있다.

이때의 ‘-야고’와 ‘-고’는 모두 간접 인용의 조사지만, ‘-야고’의 존재는 전라도 방언이 드러내는 독특한 특징의 하나다. 이 ‘-야’는 “반말의 표현을 ‘해라체’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형태인데 이 방언에서 ‘-야고’가 결합하는 선행 어미는 ‘-어’나 ‘-제, -지’ 등 “반말의 씨끝에 한정”된다(이기갑 2003: 583-4). 그러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상대 경어법의 중화가 일어난 뒤 해당 종결 어미에 대개는 ‘-고’가 결합되지만, 그것이 ‘반말’일 경우에는 인용 조사가 ‘-야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언 문법에 대한 그의 세심한 관찰은 모어로서의 전라도 방언뿐만 아니라²⁷⁾ 독특하게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도 베풀어졌다. 당시는 국어학계에서 각 방언의 형태 및 통사 구조에 대한 해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의 소설 속 인물은 경상도 방언을 문법적으로 정연하게 구사한다.

- (15) <냉동어>(1940)의 ‘박(출판사 직원)’의 진술: “항글통일안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네들이 오래오래 두고 애로 써가문서 정성으로 디리서 다야 그만침이나 통일 정리항 기 아니오?”(제5권 386면)
- (16) <금의 정열>(1941)의 ‘영쇠 고가’의 진술
 가. “내사 모르겠다! 일도 양하고 샅 받아묵으문 편치!… 뭐, 내 일가?”(제3권 481면)
 나. “뭐어가 내가 트집꼬?”(490면)

27) 채만식 소설(지문 및 대화)에 나타나는 전북 방언의 어휘·문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태영(1997)에 자세하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서술을 생략한다.

- ㄷ. “돼지고기 왔나?”(483면)
 ㄹ. “와 그르케 같이 하자고 담뱃노?”(489면)

(15)에서는, 목적격 조사로 ‘-을/를’ 대신에 ‘-(으)로’가 출현하고²⁸⁾ ‘디리 (<들이>-어서→디리서’와 ‘(것-이→)게)기’의 변화를 겪은 형태가 사용되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16)에서는, 종결 어미에 의해 판정 의문(‘예/아니오’의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과 설명 의문(‘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이 구분되는 경상도 방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이들 예문에서, 체언에 직접 연결되어 ‘-가(판정)/고(설명)’의 대립을 드러내는 ‘일-가’(16ㄱ)와 ‘트집-고’(16ㄴ)²⁹⁾ 그리고 용언 활용형에 연결되어 ‘-나(판정)/노(설명)’의 대립을 드러내는 ‘오-왔-나’(16ㄷ)와 ‘담비-였-노’(16ㄹ)의 구분은 매우 체계적이다.³⁰⁾

28) 《한국방언자료집》의 경북 편(1989)과 경남 편(1993)에 의지할 때, 목적격 조사 ‘-(으)로’는 경북 서부와 경남 일부(거창·함양·남해)를 제외한 경상도 전역에 분포한다. 이 조사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상규(1999: 36-9)와 방언연구회 편(2001) 참조.

29) 이러한 구분은 그의 모든 소설 속에 일관되어 있다. 하지만 드물게도, “저거 말 이가?”(480면)처럼 명사(‘말’)와 ‘-가’ 사이에 계사 ‘-이’가 개재된 형태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 경상도 방언의 중장년층 이하 세대에서는 이 경우에 오히려 ‘-이가’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대구에서는 필수적).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이때의 ‘말이가’는 ‘-가’-이가’의 개신을 알리는 형태가 된다. ‘말이가’가 채만식이 포착한 실재형이라는 전제 아래, 경상도 방언의 ‘-가’-이가’의 변화가 적어도 1940년 이전에 시작되었으리라는 말이다(《한국방언자료집》을 참조하면 해당 변화가 경남말보다 경북말에서 먼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와 그름 일 굴이 지리 죽을 쌍이노?”(488면)에 나타나는 유일 예로서의 ‘-이노’는 좀더 복잡한 문제를 드러낸다.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르면 경북 영주와 울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상도 지역에서, ‘명사+이노’의 형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의 ‘쌍이노’가 채만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경북 영주 또는 울진 지역 출신 화자와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경상도 방언에 관한 자문에 응해 주신 이선영(홍익대, 대구 출신)·이상신(아주대, 경주)·이진호(서울대, 부산) 교수께 감사드린다.

30) 이와 같은 종결 어미에 의한 판정/설명 의문의 대립 현상이 학계에 알려져 체계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나진석(1958)과 안병희(1965) 그리고 경상도 방언의 경우에는 나진석(1963)과 안병희(1965) 및 최명옥

이로써 보면 채만식은 분명히, 방언에 대한 연구와 그것의 문학적 수용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한 대표적 문인의 한 사람이다. 소설을 쓰기 위해 자신의 모어 방언(군산말)은 물론, 타 지역 방언(중점적으로는 경상도말) 및 일부 계층어까지 세밀히 관찰·연구하고 그 결과를 문학 속에 재현하고자 애쓴 이른바 ‘노력파’ 작가라는 말이다.

이처럼 그가 소설 작법과 함께 사투리 공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소설 속 대화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그려내기 위함이었다. 《조광》(1940년 7월)에 쓴 그의 논설 〈소설을 잘 씁시다〉를 보자.

그러면 무얼 어떻게 해야 소설을 잘 쓰는 것이냐? ... ‘테마’와 그를 옷 해 입힌 ‘현실’과가 털끝만한 빈틈이랄지 무리가 없이 잘 열려야 한다. 이것이 그리고 기교에 있어서의 즉 소설을 잘 쓰는 제1장 제1조다. ... 무엇보다도 공부가 필요하다. (제10권 198-202면)

소설을 쓸 때는 주제나 내용이 현실과 잘 어울리게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면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그의 소설 속 방언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도구 즉 문학적 ‘사실성’을 구현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독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작품을 현실적으로, 그럴 듯하게 내보일 목적으로 ‘대화’에서만은 각지 사투리를 상당 부분 채용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할 때 채만식은 문학적 ‘사실성’을 중시한 작가이자, 그러한 사실성의 재현을 위해 전국 팔도 사투리를 심도 있게 공부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또 기존의 평가대로, 자신에게 익숙한 전북 방언(구체적으로는 군산말)을 소설 속에서 매우 섬세하고 풍부하게 구사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기도 하다.

(1976)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참고문헌

- 강은진(2016), 식민지기 관북 출신 시인들의 방언 의식과 시적 언어의 향방, 《한국시학연구》 45, 83-112.
- 곽충구(2011), 일제 강점기의 방언 의식과 작품 속의 북부 방언, 《영주어문》 21, 25-54.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도경(2012),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탄생 - 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어문학》 117, 339-369.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 출판국.
- 김홍수(2016),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글의 무늬를 찾아서》(김홍수 선생 정년 기념논총), 서해문집.
- 나진석(1958), 의문형 어미고, 《한글》 123, 7-37.
- 나진석(1963), 경남방언 어법편, 《경상남도지》(중).
- 방민호(2001),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안병희(1965), 후기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건국대) 6, 59-82.
- 오홍일(2005),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 무안문화원.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공편(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상규(1999), 《경북 방언 문법 연구》, 박이정.
- 이주형(1987), 채만식의 생애와 작품세계, 《채만식전집》(전광용 외 편) 10, 창작사, 618-631.
- 이태영(1997), 채만식 소설 ‘천하태평춘’에 나타난 방언의 특징, 《국어문학》 32, 177-216.
- 임무출(1997), 《채만식 어휘사전》, 토담.
- 전광용·이선영·염무웅·이주형·최원식·정해림 편(1987), 《채만식전집》 1-10, 창작사.
-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 67-107.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현창(2012), 《전라도 사투리 사전》, 아름다운 세상.
- 정홍섭(2004),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 정홍섭(2010), 〈타류〉의 방언과 북한어, 《한국현대문학연구》 31, 243-276.
-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논문집》(인문사회) 15, 145-174, 학술원.
- 최명옥(1985), 서북방언의 문서술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방언》 8, 35-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황대화(2007), 《황해도 방언 연구》, 한국문화사.